◈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성 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

25일 오전 9시와 11시에 성탄축하예배
24일 저녁 교회학교성탄찬양제, 25일 저녁 연합찬양대 메시야 연주

성탄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 예수께서 나신 날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러나 정작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 모처럼 맞는 쉬는 날이라서 기쁘고, 선물을 주고 받는 들뜬 마음으로 기쁘다. 거리마다 가득한 크리스마스 캐럴과 장식들 때문에 기쁘고 동료들과 어울려 노는 것으로 기쁘다. 가족과 함께 찾는 성탄음악회로 인해 기쁘고 새로 개발된 기발한 성탄절 카드를 받아서 기쁘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쁨에 다소 참여하면서도 이것들이 중심에서 빗나간 기쁨이라는 것을 잘 느끼고 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금번 성탄절은 예수 나심의 의미를 진심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그 의미에 걸맞는 예배와 찬양에 참여하고 예수 사랑으로 행하는 이웃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가족회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금번 성탄절을 맞아 교회학교에서는 24일 저녁 6시부터 본당에서 성탄찬양제를 갖는다. 그리고 25일 오전에는 9시와 11시에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게 되며, 저녁 7시부터는 연합찬양대와 연합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한 메시야 합창 전곡이 연주된다.

성탄절 행사

날짜 / 시간	24일(목)	25일(금)
오전		성탄절 축하예배 1부: 오전 9시(본당) 2부: 오전 11시(본당) * 교회학교 부서 중 '예배'를 드리는 부서는 부서시간에 맞추어 성탄예배
오후	교회학교 성탄찬양제 시간: 저녁6시 장소: 본당 주관: 제1,3교육위원회 연주: '목자의 음성' 외 25곡	성탄축하 연합 찬양 시간: 저녁 7시 장소: 본당 주관: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연주: 메시야 합창 전곡

수단 단기선교 22일 출국!
의료 행정지원 통해 복음의 씨 뿌릴 터

수단 단기선교팀이 22일 출국한다. 28일까지 6박 7일에 걸쳐 진행될 금번 단기선교에서 수단팀은 의료진료 및 행정지원을 통해 현지에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이뤄지도록 섬길 계획이다. 그동안 선교팀원들은 필요한 지원을 위해 물품들을 구비하고 구제품들을 모았다. 또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위해 내복약을 복용하는 등 필요한 과정들을 차근히 밟아왔다.

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품은 복음의 전사들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교정전도회 자원봉사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정전도회에서는 춘천소년원 겨울성경학교를 앞두고서 낮고 천한 곳을 찾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동역하실 자원봉사자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월 3일까지 교정전도회로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구내전화 207번).

날짜 / 1999년 1월 11일 - 15일(4박 5일)
장소 / 춘천 신촌중학교(춘천소년원)
강사 / 조철수 목사, 박양덕 전도사

주일오후기도회 찬양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매주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주일오후기도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실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3-40대 성도님들 중 키보드와 피아노, 그리고 찬양인도자 등으로 봉사하실 성도님들은 1999년 1월 10일까지 실업인전도회(교육관 112호, 구내전화 448번, 핸드폰 011-286-9490, 011-211-1826)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추대식 · 은퇴식 · 장기근속자 포상식
27일 주일 찬양예배시에

다음주 오후 찬양예배시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원로추대식 및 은퇴식, 그리고 교회일꾼들 중 10년, 15년,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식이 거행된다. 성도들은 단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땀을 흘려온 이 모든 일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장래의 소망이 넘치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다.

원로 추대

장로
1418 강순용 1556 김방진

권사
2315 김상순 995 이문자 20 이봉재
565 이의복 653 이희수 1556 한정숙

은 퇴

장로
1566 하대선

안수집사
651 김점석 84-638 박노택

권사
492 곽선부 1608 김복순 84-1034 김석순
1019 김옥선 81-900 나봉녀 1609 남궁금원
157 박종연 334 신정희 3996 심의숙
651 안태례 2869 이보영 1145 이순희
84-217 이용옥 331 이정희 5167 이종복
4107 정래란 1270 정순자 3457 정순정
84-1150 조옥순 1566 최재호 150 한동숙

장기근속

20년
장로
1556 김방진 1418 강순용 242 마성락
814 김차생

권사
1699 고정임 2921 노희춘 2079 최수남
1167 민순애 1271 변순복 1556 한정숙

서리집사
2499 오영희 4417 최선두 181 김신자
1091 김종남 1958 양영자 2366 이윤자

15년
장로
3393 김영길 2164 김종구 1371 김천채
761 문홍구 2366 이창호 196 정운석
1584 조인제 2041 차신득 2436 최무길
198 송환창

교역자
283 장영자 96-200 임태주

안수집사
798 황의만

권사
659 강경란 2511 구영인 655 김운심
200 문명애 568 민건식 1845 유영희
321 이남수 1145 이순희 1815 이인자
4654 전명옥 2471 정경자 2459 조 숙

서리집사
79-234 강신호 4230 강태영 2982 권기태
79-87 김경환 82-791 김동림 81-1034 김보원
81-971 김상길 2844 김상득 81-305 김원호
1717 김제건 79-435 김종홍 319 김철환
1644 김현식 1291 문양규 4115 박상태
79-246 박준배 2621 백용옥 3451 신명성
3610 안승현 4789 유영식 4759 이병석
3366 이성근 404 이윤봉 861 이정신
4177 이종성 3360 장금줄 79-567 장영수
80-201 전계식 80-747 조상수 80-25 황정길
5098 황학규 1546 김경애 81-305 김금순
82-122 김금순 5100 김도화 79-297 김봉순
82-59 김상희 1959 김선자 80-54 김순남
4426 김영실 82-387 김옥산 79-255 김유희
4104 김정희 2182 문경숙 3103 박용순
79-46 박진혜 2181 백순자 79-567 서정옥
2849 서종남 4011 소길순 4875 안효선
4948 양승남 4145 양신자 3745 오현자
4496 이경자 2096 이명희 5165 이상순
5345 이순옥 81-971 이옥자 80-366 정미자
2936 정순옥 4160 조순남 4409 조옥희
80-201 조중선 2499 최경순 83-130 최동옥
319 태명자 479 한외조 4694 홍금숙
3190 홍화숙

찬양대
110 손소영

10년
권사
1550 강용순 1419 김군자 86-644 김동례
2702 김선화 79-33 김정자 3631 김진연
1473 김혜숙 80-374 박두희 3685 박말수
846 박정자 4958 박혜정 4882 서인희
2152 양영숙 2285 염숙현 3414 염종순
585 우점옥 59 원길자 3393 유금순
5061 윤성숙 268 윤원노 79-336 이연순
3127 이옥순 491 이인숙 5167 이종복
634 전신덕 3457 정순정 86-366 정 옥
1908 정태옥 4230 조성금 3417 조순자
2828 조태난 80-100 조희순 87-176 최미정
87-629 홍혜숙

서리집사
4266 강태주 86-17 구성혁 87-591 권오준
82-132 권용동 3895 김구현 83-573 김근호
81-921 김동삼 80-93 김성태 81-552 김인수
3243 김인철 165 김일교 83-550 김재윤
83-103 김재춘 88-520 김정조 87-632 김종옥
3127 김형만 81-414 노태경 684 박근엽
2861 박상철 82-601 박해권 81-665 박홍남
80-797 백재홍 2174 설창경 80-374 손진성
4843 송병열 3421 송태련 82-733 신건중
754 안세현 86-822 양한원 3515 우중근
86-122 유현동 81-1025 이규한 82-614 이상일
86-6 이승득 80-860 이윤복 172 이정림
2842 이준식 81-330 이중환 86-304 임낙준
86-314 임병준 81-686 임상근 1568 정관이
2598 정무일 1834 정상교 81-434 정성교
5231 정한봉 86-172 조용수 86-383 조중민
85-240 조형수 85-439 최삼조 85-794 최준석
79-566 허광만 86-422 허남철 83-473 허정호
2117 홍치순 85-896 강신자 80-734 강영애
80-354 강현자 82-487 고지현 81-762 고진순
84-1071 곽옥순 86-215 구현숙 115 김귀례
80-424 김동금 91-53 김말선 83-176 김명자
81-421 김문정 86-172 김미열 5363 김병희
86-45 김보옥 85-820 김성순 1901 김성자
85-38 김순영 84-1089 김양님 79-370 김영은
86-364 김영혜 83-274 김영희 4814 김옥선
85-705 김외숙 80-262 김유순 87-23 김윤경
82-755 김정순 86-304 김정순 81-743 김종성
81-474 김지련 84-450 김충자 82-346 김란순
82-194 김행복 81-628 김현수 85-829 남경자
3264 노재희 82-669 모미애 80-90 문순안
5012 박귀순 84-202 박애리 85-661 박종영
87-80 방희정 87-734 배정숙 87-657 백금옥
86-731 백영주 1617 봉미자 84-532 서금자
84-190 서정희 84-129 석금숙 79-15 성정요
4472 손일생 86-490 송선옥 82-369 신금순
86-645 신영자 85-934 신진숙 86-434 심영숙
86-138 심필순 83-312 엄선자 85-206 여주녀
84-307 오경애 81-290 오덕수 137 오수옥
80-758 오영선 83-316 오화숙 84-534 유강자
81-779 유묘종 86-318 윤춘심 87-371 이경자
82-687 이귀례 782 이민자 80-118 이설희
82-732 이성희 4919 이순애 85-495 이애숙
85-155 이영숙 84-63 이옥녀 83-304 이옥순
3515 이은선 81-776 이은옥 151 이점례
79-109 이정운 85-693 이춘자 82-405 이현옥
1221 이홍옥 80-749 임지현 4946 임창순

* 대상자는 12월 27일(주일)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 강대상 앞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 해

앗수르군의 유다 침략과 멸망에 대한 예언

(이사야 33:1-12)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 창 인 목사

1.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앗수르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 (1절) 강한 자가 공연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화 있을진저' 입니다. 큰 나라가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잡아 먹으려고 침략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략하는 자를 얼마 동안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주이시므로 강한 자가 남을 학대하면 그것이 끝나는 날이 바로 그가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는 날이 되고 강한 자가 남을 속여 빼앗아 먹었으면 그도 남에게 속아 빼앗기는 때가 오고 강한 자가 남을 학대하던 것처럼 그도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칙입니다.

2. 앗수르의 침략을 받는 약자인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2절)

강한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길 때에 약한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저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괴로움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낙심,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탁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모든 어려움은 내가 조심하지 않고 덤비고 교만한 중에 경솔하였던 죄값이 나를 함정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권능이 아버지의 손에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먼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4절). 억울함을 당하던 약자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4절). 원수들이 무서워서 자유를 잃고 숨어서 살던 약자들이 악한 자들이 모두 망하고 흩어진 후에 그동안 죽은 듯이 숨어 살던 약자들이 자유롭게 나옵니다.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4절). 열왕기하 7장 1-20절에 보면 아람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사마리아 성안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소리로 아람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가져온 약식으로 다 굶어 죽게 된 사마리아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살펴보시는(5절)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남을 속이는 자에게 심판의 몽둥이를 드십니다. 티끌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티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들의 보배입니다(6절). 높은 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구원의 평안이 있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풍성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참된 인격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서 인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상은 여관인 것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악마와 죄를 알게 됩니다. 둘째, 의를 행하는 용기가 생겨 인격자가 됩니다. 옳은 것은 땀이 나고 빼가 아프고 물질에 손해가 나고 인격에 오해를 당할지언정 의를 행할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법이 없어서 인격자가 됩니다. 남자가 꾀고 여자가 유혹을 하여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유혹하여도 죄악이면 단연코 거절합니다. 넷째,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어서 인격자가 됩니다. 오늘에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어느 시간에 세상을 떠날지 모르므로 그 전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활에 만족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니 우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실수없이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영육에 필요한 것을 하늘 창고를 여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모자라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개로 품어 주시니 육신의 생활도 안전합니다. 남들은 세상이 괴로움과 죄만 있어서 눈물의 바다라고 하며 한숨을 지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가정은 천국입니다.

셋째로, 어느 시간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느 곳에든지 무슨 사건으로 세상을 떠날지 그 시간과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3. 앗수르의 침략을 받은 유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 유다의 용사들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 (7절) 앗수르군이 밀고 내려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군은 사기가 다 꺾여서 싸워 보지도 않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 유다의 사신들이 이연실색하였습니다

"…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7절) 앗수르군이 북조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방 유다로 밀고 내려 오려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보내어 화친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때 앗수르는 그 조건으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이래서 히스기야 왕은 궁궐에 있는 은금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꺼내다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채워서 앗수르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은 앗수르 왕은 마음이 변하여 선물받은 날로 유다를 향해 쳐내려 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적군 앗수르에게 갔다 와서 돈이 손해나고 명예가 손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사신으로 갔던 자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 평화의 사자들이 슬피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3) 유다의 대로가 적군 앗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 (8절) 앗수르 군대가 큰 길로 밀고 내려 오면서 도로를 다 점령하니까 유대인들은 큰 길로는 다니지 못합니다. 큰 길로 다니려고 하다가는 포로로 잡히거나 죽게 됩니다.

(4) 유다의 땅이 쇠잔해졌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시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9절)

4. 앗수르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 지금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10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군이 따라오고 배 한 척이 없고 다리를 놓을 나무토막 하나 없는 홍해가 넘실거려서 인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강한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약한 자가 할 수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세상의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밝히우는 분이 아니시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겠다' 고 하십니다.

(2)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때에 앗수르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앗수르는 내용물이 없는 겨처럼 끝날 것입니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11절) '겨' 라는 말씀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앗수르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 때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짚이란 1년초로서 곡식을 자르고 남은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자들의 계획은 열매가 없는 짚으로 끝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있는 계획을 해야 내용이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용이 없는 계획에서 내용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앗수르는 자신이 한 말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11절) '호흡' 이란 말을 뜻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히스기야가 무엇이냐? 하고 함부로 저주한 그 말값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네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네 입으로 악독한 말을 했으니 네 말이 지옥불이 되어 너를 다 태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편이라고 해서 앗수르 군대가 잘하는데도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앗수르가 망한 것은 악한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악독한 행동과 말을 했으니까 자신이 한 말대로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가시나무처럼 불에 타 멸망할 것입니다. "…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사 33:12) 가시나무를 뿌리까지 베어서 불에 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주신 선물을 앗수르군이 모두 빼앗아 먹고는 미안한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의 시민까지 모두 죽여 버리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앗수르군을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뿌리까지 뽑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신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악한 자와 타협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는 깨끗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악독한 자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도 한정이 있는데 이 한계를 넘으면 그때 하나님이 칼을 뽑으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내 집에서 자라는 어린 아들 딸을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골로새서 3:12-14)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

오늘은 성탄절을 보낸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신령한 것과 진정한 것을 소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예배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 번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피차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거대한 파도를 맞아야 하는 보잘것없이 작은 배를 상상해보십시오.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어보십시오. 병원마다 가득한 환자들과 고통스런 온갖 질병들을 보십시오. 죽어간 이들의 묘지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속에는 삶에 대한 혼돈과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의 땅 안에서 어떤 진실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디를 둘러보고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삶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사랑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는 말로 대신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등. 전 세계가 본질은 모르는 채, 피상적인 가치관을 좇아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즉흥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양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될 뿐이고 결국에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우리는 창조주시요 주인이시요 왕의 왕이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습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사랑과 은총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

이틀 전 성탄절에 저는 '선물'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천년 전 그 날에 하나님은 세상으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이요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릅니다(요 3:36).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연합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의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헤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삶을 보내셨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악한 죄인의 누명을 쓰고 피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피에 씻기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관용과 인내와 용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훈련시키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만 바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랑과 화해의 대사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죄의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요일 4:7-8)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롬 5:5). 이에 따라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관용과 인내와 용서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14절). 사랑은 제일 큰 선물입니다(고전 13:13). 우리가 받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가 되게합니다(고후 5:14).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기초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서로를 결합하게 합니다. 친구와 화해하게 합니다. 가족을 하나되게 합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참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라고 무성히 말만 합니다만 거기에는 참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텔레비전, 영화, 잡지 등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우리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십시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만 바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고자 할 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관용과 인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세상을 행해 빛을 비추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 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현재 7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나라별로 외국인 형제들이 그 나라 말로 찬양과 성극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려는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외국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행사는 12월 24일 충현기도원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형제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하여 12월 27일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15장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의 가사가 실감나는 성탄행사입니다. 여러 나라의 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9시 본당 지하 아멘홀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We Invite You
"초대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일년동안 많은 고생과 수고하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께 98년 마지막 주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신 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열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오셔서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언 제 : 1998년 12월 27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어디서 : 충현교회 아멘홀 (본당 지하 2층)
모이는 사람들 : 중국, 몽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등에서 오신 외국인근로자들

토막소식

- **성경고사 찬송경연대회** - 동서울 노회에서 주관하는 교회학교 성경고사 및 찬송가경연대회가 22일(화) 오전 10부터 우리 교회 갈릴리홀에서 거행된다. 이 대회를 통해서 충현의 학생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 행하고 찬송의 기쁨을 알게 되는 은총이 임하시길.
- **교사총회** - '98 교사총회가 26일(토) 저녁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된다. 1부예배 후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구교사와 신교사들의 교체, 신교사 인사 및 교제의 순서로 진행될 금번 총회를 통해서 1999년도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통이 이루어지길.
- **남녀전도부 총회** - 오늘 오후 3시에는 갈릴리홀에서 남녀전도부 총회가 진행된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모두 참석하여 '전도하는 전도회'로 나아가는 99년도를 위해 기도 중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1교구

♥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감사드리며 이 기쁨을 함께 누릴 복을 받은 김 집사님 우리 구주 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려보내세요.* (이수자 권사)

♥ *이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초등부 김지윤)

12교구

♥ LA에 있는 사랑하는 사위 정서방에게. *기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가족 평안과 호일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밝아오는 새해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12)라는 말씀 붙잡고 더욱 의지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돌리기를 기도드리세.* 일산에서 보고 싶은 장모가. (이혜자 권사)

♥ *말로만 듣던 고3 수험생 부모였던 올해.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았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며 여유있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샬롬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애영 집사)

♥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근무하는 남편 이상일 집사님에게. *헐벗고 굶주림에 지친 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보! 당신이 계신 그곳에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로 인해 평화와 사랑을 느꼈으면 …. 메리 크리스마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한성희 집사)

15교구

♥ 건강이 좋지 않는 성도님. *성탄을 맞이하여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광호 집사)

♥ 외롭고 소외된 분들께.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영접하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한숙원 권사)

♥ *하나님이 친히 사람되시어 아기로 오신 날. 하늘의 별들도 천사들도 기뻐하며 경배한 날. 우리 구주 나신 날을 기뻐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수덕 권사)

♥ *희망을 잃은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경희 집사)

(7면으로 이어짐)

1999년도 위원회 일꾼

99년도에 각 위원회에서 섬기실 일꾼들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각 위원회가 합력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예배부원

전용해 김은철 손진성 표완식 권 철 신명선 안병호 이인영
김시주 정성구 이석영 오인근 한경선 안성영 황기용 노영한
이호일 김홍기 안회정

성례부원

김옥래 왕진숙 박옥식 김옥희 최 순 현계식 최태옥 김정순A
필기복 김정순B 김준자 윤정식 박영임 윤옥자 김인숙 김옥희
최영득 정호진 홍혜숙 최경복 신영순 구옥자 우정자 라영실
유병순 조복덕 박윤석 이오목 박갑연 구정회 유영희 김남진
김석윤 임옥환 석정자 이영숙 정주한 이미재 최 순 박효지
전명옥 홍명순 이순자 박정순 임근예 남정애 변옥희 김양자
전부덕 김화선 이종숙 김애경 이경효 이상덕 강봉순 조회순
이안숙 진회순 이음전 황규선 안정엽 임원실 이춘일 조 숙
한영숙 이명자A 민건식 양영숙 정명섭 이의복 지순애 홍유순
한영덕 정순정 전일항 우순성 홍양례 최봉순 유금열 김분식
이명균 권오순 신차식 조향숙 나봉녀

안내부원

김재홍 소재철 이찬재 김용산 김계회 김언회 이덕영 이중현
백재홍 이종원 김근호 김신원 강석화 장길남 정민자 정은숙
김정희 오말녀 유정자 김순임 김문정 박경희 윤 순 황인주
엄균영 지정록 정훌준 홍성욱 박석봉 김재명 모미애 유현정
서성미 이미숙 김진구 김양준 남용승 홍성국 김성수 김진순
김인숙 윤희순 이옥자 김영언 신진숙 김순자 엄계월 김영희
봉경숙 박옥림 김원봉 변영민 이연구 김종서 이종석 김영길
권영일 함경무 김승곤 김재영 마동훈 정영례 한정희 윤향중
김유자 이정덕 민영기 이회순 유승자 박귀숙 구재완 이기숙
이상해 박범익 최종배 정운환 김영구 안옥님 고금자 황영숙
박영희 주순정 김영숙 전명식 지영순 오영선 김영호 윤로준
김익현 최은희 서옥선 이금복 양신자 차장옥 김명중 윤석구
김저찬 양근식 황영철 김준호 김정순 장혜숙 홍경숙 백희숙
김명희 김정희 김수경 김 민 조영우 임성룡 박지현 이주영
정안나 김지윤 전성신 허금숙 안회정 김미자 이경숙

헌금부원

전용해 이만기 장봉순 박창서 김용도 표완식 박문태 박종현
엄기정 이 영 박태진 최지윤 이상호 손기현 박병택 이지은
조중광 금호탁 권철 이찬욱 김광호 안성영 노영한 유상태
허 오 김희창 김창국 마도원 김연근 안동현 이동명 이현순
김월매 김종란 이정림 안순옥 문성애 김향자 이명숙 안숙자
김신순 최전화 임현진 권정자 서혜경 정순옥 최지선 백옥심
정옥화 김준남 양효민 이동섭 김무수 김순옥 홍순섭 조홍연
신은소 김경순 김성순 정복득 유옥련 김하주 강정희 손공림
정효석 강정일 조중민 김순자 임광신 이영금 배연식 박혜옥
신휘섭 임진숙 이달순 이영자 이성남 홍순이 유병렬 조윤정
이은교 김창권 주낙진 박범익 임정희 최종란 은필례 김용조
장동영 오혜숙 박종운 김종만 김재순 이영순 최한중 박옥자
이금수 유기순 염낙서 임대여 신현주 최영숙 이기숙 박소엽
황재현 손태계 김지순 이은단 이규자 신필숙 하말영 김영희
노규식 김정자 심재서 노분선 박정혜 이상복 고춘대 박정우
안효선 김영미 박순모 장성자 오경애 고춘대 윤병순 이형찬
김순자 민행님 이인원 이삼세 오춘실 김종순 정형심 김봉숙
강준자 백남식 이영숙 최순자 안정선 배귀녀 황순선 김주분
유병순 한동열 신휘섭 임진숙 박길홍 양승길 김현옥 정경희
이강근 이영의 김종순 이동희 김관형 이오목 이관순 김복희
왕덕자 김장호 최계순 노수태 김현자 이정자 이문구 박광자
이춘재 최숙진 손복희 박갑련 김영하 김정자 안정자 정길례
고호영 김차금 이영애 서경자 어혜옥 박석봉 김경순 김성금
김한숙 박금자 유관인 김영숙 박옥선 노순희 이경숙 최화자
박차화 이묘남 신덕길 조숙예 최정자 김순례 김숙자 김혜선
윤인순 김지련 민문기 신성자 손무길 박희승 임삼례 김형숙
최영숙 송영준 정순팔 이정화 김옥희 백경옥 조은신 박인자
유일옥 박귀자 하두연 박신자 박영자 최영자 이홍순 김경애
성춘순 안용녀 김현순 구영희 전춘옥 신경순 한정옥 한성숙
신정순 김순배 윤마리 이순일 천수자 방신자 김미자 유주옥
양옥자 박재규 김영자 김윤숙 오영란 권오준 차명신 윤신자
변금순 조옥주 이강해 유충곤 오순자 권귀순 이수자 박부강
이희석 김순화 송앵자 양영숙 하두연 정애화 정영애 김숙자
김재윤 김해자 유강자 권혜연 장옥자 이정화 임형순 이옥자
박병순 정옥자 최광숙 김재남 이혜주 권필순 이기애 박귀순
안수자 장화숙 남귀숙 조복연 박영순 전옥이 정금자 송춘임
선화성 양영자 서금순 김경희 김경희 안성영 이재욱 양반석
지성훈 김은주 임성룡 정성신 이영빈 최성호 오상균 김수연
김성윤 정안나 백승진 박경옥 정용동 양윤선 민수정 정이진
황회선 김미선 박희정 추은회 윤소연 정일래 박수정 김소연
배지혜 박성미 김내인 이경우 김유정 박승산 안복남 김홍회
류 정 황은혜 이지욱 김정남 최길남 황인주

전도위원회

양효민 이태식 배춘식 박종현 정청길 정창일 조석구 박태진
송두섭 장순옥 김혜정 이찬욱

선교위원회

실행부

김태식 심진경 김현철 권영진 박춘선 안소영 오경희 최은아
김영록 신광철 한용배 박두일 김계화 박효지 신일순 김경순
심효숙 이회자 정정자 이형수 권명옥 김광호 김인철 동지현
김영길 안세현 김정회 최민석 오 석 김대황 김경철 이유주
백영자 박형곤 최지윤 윤종극 김규종 배춘식 김태호 최남희
최대환 최춘흠 홍택기 최동규 박윤석 박정순 성부자

국내외국인선교부

안석현 유호순 신광식 정의홍 이성우 윤해균 송선홍 박영선
김충진 허광만 이창권 김장언 이쌍대 윤철중 정종수 고문길
김민철 구자웅 주종열 이중환 김신국 김철환 김정표 이병석
이종훈 최정길 구영자 권혜연 김정희 강려화 박애희 이부용
도수자 심영희 김경희 신재금 권혜석 신지현 김현경 신지수
정영숙 박선영 안주현 한규정 오지현 엄정섭 안정하 하옥봉
박민서 한정은 송연임 이소규 주순회 안혜진 최은아 박지선
김명신 유경혜 이현애 김혜정 정성실 박명자 이인수 김현정
장보윤 김은미

선교연구원

장충균 이복희 정태동 이신동

봉사위원회

차량관리부

안동현 박찬섭 이영일 허명호 황현철 박창식 차기풍 손기현
변해수 성 충 백승환 최홍섭 이성실 이재용 김원호 이창권
주낙진 우기섭 공석생 장영창 박원화 이재철 엄창근 권용동
김낙홍 민명욱 이교영 강신호 김면영 김종홍 김종성 차정각
김동안 이유성 장철규 정문호 홍석표 윤선한 한종현 강병모
전승훈 이인수 김종규 이우영 윤석규 김명성 박호용 김정태
이용열 박영기 김봉중 최한중 정무열 김성택 장동규 김영연
김동삼 김수진 박순규 김종민 문효식 전인환 권태선 김영길
추병창 한종구 이승구 김일교 장영환 임동재

기획위원회

편집장 / 이형수
편집 / 이운구, 정연희, 김창규, 유성희, 이수경, 양성연, 박주영, 김정민, 김길남, 최정은, 각 교구 및 부서 통신원

교육연구소

서기 / 이형수 회계 / 김영숙
교육기획분과 / 이인상, 안석현, 허 오, 김경희
교육자료개발분과 / 김단용, 김규석, 전은배, 김정순
교육행정분과 / 서동석, 이부성, 박성명, 최 규
자문위원 / 각 교육위원장 및 지도, 교육훈련원부원장 및 지도, 기획위원장
연구위원 / 윤영탁, 노봉린, 박형용, 이인상, 김단용, 서동석, 남선우, 최대원, 각 교회학교 지도
운영위원 / 자문위원 분과장, 각 교육위원장 및 지도

99년도 집사, 권찰 누락자

3교구 권찰 - 정유진(92-597) 4교구 권찰 - 김초희(95-677), 유미향(96-731), 집사 - 손명민(1381), 이용재(1381) 7교구 집사 - 김주헌(86-783), 오지현(86-783), 연예순(86-10) 11교구 집사 - 안도영(94-610) 13교구 집사 - 조철주(84-832) 17교구 집사 - 권용철(93-815)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특별한 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

김 지 은(70동기)

누런 봉지를 양손에 한 아름 안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시며 현관을 들어 오시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라는 엄마의 질문에 "세상에 종로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아 글쎄 하늘에서 산타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착한일을 많이 한 딸들에게 과자를 사다 주시오.'라고 하지 않겠소! 그래서 슈퍼에 들러 이렇게 과자를 사왔지" 하시며 여러 종류의 과자들을 우리 세 자매 앞에 풀어 놓으셨다. 어린 내겐 마냥 고마웠던 산타할아버지였다. 그후 몇 해가 지난 어느 크리스마스, 하얀 눈과 함께 우리 앞에 피아노를 선물했던 산타할아버지. 중학교 입학 후 맞는 크리스마스엔 지형설명만 20장이 넘어가는 EAST OF EDEN을 선물했던 산타할아버지. 그 속엔 늘 산타할아버지가 준 의미가 있었다. 산타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홀적 커버린 몇 해전의 크리스마스 이브부터는 청년1부에서 갖는 명동 촛동원 전도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교회를 알리는 전도지를 들고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쁜 걸음으로 전도지를 받고 지나가는 사람, 받았던 전도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닥에 버리는 사람, 거절하고 지나가는 사람 등등. 그중 몇 안되는 사람만이 귀를 기울여 듣고 두 손을 꼭 잡아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하며 격려했다.

작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전도 후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먼 여행이었다. 다른 해와 다름 없이 전도를 하고 전철역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전철의 지연으로 사람들은 발딛을 틈없이 빽빽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온 사람들인지 ….' 시간은 11시를 넘어가고 다음 순간 좌석 버스가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좌석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차도 위를 가득 메운 차량의 물결은 명동에만 1시간을 넘게 지연하며 울려대는 경적소리만이 가슴 한쪽을 담담함으로 남게 했다. 새벽 1시가 되서야 집에 도착. 고단함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다.

크리스마스에 몇 안되는 기억 중 상업성으로 변질된 우리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산타가 주인이된 크리스마스. 인본주의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주님은 의인이라 칭하시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죄 많은 인간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으로 천국의 영생을 취하게 하셨는데 세상에 만연된 문화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담습하며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를 점검해야 하겠다. 형식적인 태도로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올 크리스마스는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어느 구석에서부터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일종이 울려퍼져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

크리스마스의 기억

우 현 미(72동기)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 나신 날이요", "사탕이랑 과자 받는 날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이요.",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사슴들이 썰매를 끌고서 우리 마을에 오는 날이에요." 각기 다른 대답이 여기 저기서 쏟아진다. 그러면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렇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러셨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기 전보다 더 어렸을 적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란 대답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아이에게 머리 말에 양말을 두고 자면 선물을 그 안에 가득 넣어주신다는 생각이 컸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하얀 눈 속을 마구 달려서 우리집 지붕 위에 계시다가 내가 잠드는 걸 기다렸다가 선물을 주고 가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말도 제일 큰 걸로 머리 말에 가지런히 놓고 동생들 머리 말에도 나보다 작은 양말을 하나씩 놓아주고서 선물을 많이 꽉 채워 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에는 그 양말 가득히 채워진 과자나 장갑, 양말을 보면서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나같이 착한 아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받지 못한 옆집 또래의 친구들에게 으시대면서 말이다. 교회학교를 통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산타 할아버지도, 썰매를 끄는 사슴도 없다는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그리 즐겁지 않았다. 머리맡에 양말을 두는 대신 그 새벽에는 새벽송을 돌게 되었고 다음날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다. 섭섭했다. 그리고 산타 할

이젠 달라져야 한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보다 산타를 먼저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버지가 없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쉬었다. 그것이 내 초등학교 시절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다.

더 자라서는 의례히 진행되는 행사였다. 아이들에게 나눠 줄 과자와 사탕을 한 주머니씩 담아서 포장 해두고 강대상과 문, 천정, 벽면에 온통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들을 그리고 오려붙이고 트리를 만들고 매일같이 아이들이 성탄절 행사에 선보일 노래나 춤을 연습시키며 그해를 보냈던 것 같다.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가!

동방박사들과 천사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모든 만물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데 왜 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더 기억되는걸까? 그저 한아름 안겨주는 과자와 선물 보따리가 흐뭇했었다. 산타할아버지가 사슴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나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태워 줄 것 같았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보다 산타를 먼저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헌금도 할 수 있고 선물도 드릴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카드도 보낼 수 있게 말이다. 아무리 방송에서 산타를 앞세워 이겨 보고자 하여도 그건 거짓 크리스마스란 걸 알게 하잔 말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더 이상 산타와 함께 꾸며지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날은 언제쯤일까!

친애하는 예수님께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를 기대했는데, 차가운 바람만 쌩쌩 부는군요.
안녕하세요?
지금이 몇번째일까요? 일천구백구십몇번째일 건 같은데 ….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신기하죠? 인간의 나이로 하면 호호 할아버지 하고도 꼬부랑 할아버지일텐데,
우리는 언제나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에요.(호호호)
예수님!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으셨고 또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고 있어요. 배를 곯는 것은 물론이구요.
우연히 서울역 근처의 지하보도를 걷게 되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떼구물이 줄줄 흐르는 더러운 이불을 덮고 추워서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이 자고 있었어요.
지하보도의 길이는 약 30m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더라구요.
그들에게도 얼마 전까지는 가정이 있고 집이 있었을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는데, 그 옆에 어린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같이 노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이어야 할텐데, 올해는 왠지 슬프네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기대감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보다 한 끼 식사가 더 급한 형편이니 ….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건강한 자보다는 병든 자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축하 편지에 슬픈 이야기만 잔뜩 써 놓아서 죄송은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주 많이 든든해 한다는거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고, 이 행복을 다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요.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이 땅에 와 주셔서요.

1998. 12. 25.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선교지에서의 성탄절

무더운 성탄절에 임하시는 은총

고 은 빈(캐나 평신도선교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 점차 늘어

성탄절은 복음 전파의 귀한 계절

한 해 동안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 후원 해 주신 충현의 식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맡으며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반문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기도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되새겨 보니 곤란당하거나 실수함없이 그 모든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실수함 없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뤄가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캐냐의 12월은 한 여름입니다. 태양 빛이 너무 뜨거워 그 아래를 걷다보면 머리가 멍해지기도 합니다. 더운 크리스마스가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곳 맛사이에서 5번째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늘 크리스마스는 춥고 눈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더운 크리스마스가 익숙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면 기분이 묘하답니다.

12월이 되면 한국에서는 사방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 반짝이는 불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지만 케냐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캐롤이 사방에서 들려오지는 않는답니다. 특히 저희 맛사이는 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과 날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이해시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맛사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알 수 없는 날입니다.

처음 맛사이에서 성탄절을 맞으며 맛사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도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조차도 이해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날을 맞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스스로 교회를 장식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맛사이의 성탄절은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가장 많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인들은 아침부터 성탄절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탄절을 기하여 1년에 한 번 있는 세례식을 갖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이날을 지내기 위해 애쓰는 저희 교인들을 보며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충현의 식구들도 우리 구주 오신 날을 기쁨과 감사 찬양을 드리며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람직한 성탄문화를 위한 제언

서 광 진(목사, 2교구 지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IMF 경제한파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우리에게 설렘을 준다. 전국 교도소에서 모범수들이 석방되고 울려 퍼지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소리가 이웃 사랑을 호소하며 캐럴송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한다.

어서는 안된다.

▶사실 바른 성탄 문화의 정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검소한 장식을 집 안팎으로 설치한 후 성탄에 맞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모았던 저금통을 털어 성탄헌금을 준비한다거나, 이웃들과 선물교환 및 조촐한 저녁식사라도 나누며

성탄절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은 시장인 것 같다.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앞세워 사람들의 구매심리를 충동질하고 주인공 빠진 크리스마스 카드로 관심을 빼앗는다. 성탄절을 대목으로 생각하고 상품화하기에 바쁜 것이다. 각종 대중매체도 이에 합세하여 오락프로를 대거 방영하고 극장가에서는 신 프로를 일제히 개봉해 크리스마스를 쾌락적 축제의 날로 인식시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 그의 탄생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근본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 의미, 거룩한 종교적 명절로서 성탄절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엄청나신 자기 비하(卑下)요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

교제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척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기록한 문안 카드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세상에서 불거리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도 연중 특별행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교회에서 하는 특별행사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절한 주제의 설교와 찬양, 성시낭독, 혹은 드라마 등으로 이루어진 예배를 성탄절에 맞게 구상해서 진행한다거나 천지창조부터 초림과 재림까지를 이어주는 스토리와 찬양으로 예배한다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이다.

▶개혁 교회의 강점은 단순한 행사에 있지 않고 원리에 있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여 말씀의 자리로 늘 돌아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탄절이 거센 문화에 밀려 옹색한 잔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별을 찾아간 사람들

성탄절 추억하기 기념하기

이 인 상(장로, 소년부 부장)

"딸랑 딸랑!" 구세군의 자선냄비 소리가 12월을, 성탄을 알려 주는 시즌이다. 나는 코흘리개 시절에는 시골교회가 10리 밖에 있어서 남들이 먹을 것 타먹는 재미에 교회를 연중행사로 기웃거렸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못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밤새 친구들과 놀고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면서 새벽송 도는 재미로 무수한 성탄을 보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 다니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숙연한 마음으로 부르는 분위기도 좋았고, 어느 집사님댁 장로님댁에서 주는 종합선물 과자 부스러기 받는 재미도 쏠쏠했다.

▶새벽송 돌다 받은 먹을 것을 나누어 어느 방이 넓은 친구집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놀다 보면 그 다음 날 성탄 축하 예배는 졸기 일쑤였다. 그 때는 내게 주님도 멀리 계셔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셨고 성탄의 분위기에만 젖어 교회를 들락날락거렸다. 그런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한심스러우셨을까!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은 이러한 젊은 나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셨다.

▶군대를 갔다온 뒤부터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띠며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보잘 것 없는 말구유 위에 성육신하신 그 사랑! 나는 비로소 별을 찾은 것이다. 내가 따라가야 할 별.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 주는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 준 별.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성탄은 내게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간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초기에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한껏 전율했고, 이제 육순을 넘어 고희를 바라보는 머리 희끗희끗해진 나이에 맞는 성탄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이다. 그리고 그 잔치는 1년에 한 번 연중행사로 치러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잔치인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성탄은 내게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간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초기에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과 경배로 한껏 전율했고, 고희를 바라보는 지금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로 성탄을 맞고 있다.

▶올 성탄에는 누구와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나눌까? 그동안 무심히 인사만 나누었던 이웃들, 교회 성도들, 올 겨울을 유난히 춥게 보내게 될 노숙자들, 고아들, 장애인들, 고통받고 소외당한 약한 이웃들, 그들을 좀더 찾아가야겠다. 그들 속에 거하시는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만나러, 별을 따라 떠난 박사들처럼, 오늘 이 안일의 땅에서 무관심의 땅에서 이기심의 땅에서 떠나야겠다.

지체들의 성탄 메시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카드를 띄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영아부

♥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도 없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나 양치던 목자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어요. 주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황영일 장로님)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기쁜 소식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아기들의 몸짓에 감사가 있고 아빠, 엄마들의 포정에 감사가 있으며 겸손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선생님들이 어우러져 있는 12월이다. (이선자 선생님)

유아부

♥ 하얀 눈이 사락사락 내리는 밤에 우리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꼬마양이 엄마 품에 쿨쿨 잠잘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 나셨어요. 주운 겨울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선생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김예람 어린이)

♥ 예람아, 이제 곧 유치부로 가겠네. 유치부에 가서도 예배 잘 드리는 예람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예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단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선물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기도를 드리자꾸나. (임미순 선생님)

유치부

♥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 많이 할게요. 사랑해요. (권정윤 어린이)

♥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까지 돌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원 어린이)

유년부

♥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유년부 장로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17반 선생님과 친구들, 이 기쁜 날을 축하해요. (이홍재 어린이)

♥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은혜, 이은혜 선생님)

♥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상호에게. 한해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잘 배우고 착하고 기쁘게 생활한 우리 예쁜 상호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영원토록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랑스런 자녀가 되길 바래요. (윤마리아 선생님)

♥ 존경하는 윤마리아 선생님께. 한해 동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느라 애쓰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신 성탄절 즐겁게 보내세요. (문상호 어린이)

초등부

♥ 온 나라에 평화가 가득하길 …. 하나님! 성탄절에 흰 눈이 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금지현 어린이)

♥ 주님의 탄생! 아 너무 기뻐! 빨리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김주희 어린이)

♥ 즐겁고 기쁘고 보람있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 (이한솔 어린이)

♥ 가장 높고 존귀한 보좌 위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말 구유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유난히 춥고, 외롭고, 아픈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탄의 종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명숙 선생님)

♥ 온 세상에 소복히 쌓이는 흰 눈처럼 온 누리를 하얗게 덮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캄캄한 밤을 밝게 비추는 별빛처럼 어두운 곳에 빛이 되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윤수진 선생님)

♥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거리거리에 찬란했던 모습들도 올해엔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 춥고 어두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춥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귀하며 특별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 땅의 꽁꽁 얼어붙은 곳들을 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소망의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계혁 선생님)

소년부

♥ 온누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박눈처럼 펑펑 쏟아지는 성탄절. 어려운 이웃과 조금씩 나누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이 되세요. (김미리 선생님)

♥ 한 해를 또다시 마무리 합시다.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저희 영혼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리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세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중명 선생님)

♥ 친구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왔다. 한 해도 다 지나가니까 마지막 해의 정리 잘하고 내년에도 주님 은혜 안에 사이좋게 얼심히 지내자. (백혜수 어린이)

♥ 사랑하는 친구야,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올해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사라 어린이)

중등1부

♥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사랑 만큼 눈이 많이 내려서 꼭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신장열 선생님)

♥ 전도사님께,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혜원, 성희 올림)

♥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김단용 장로님)

♥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뻐하자. (이은희)

중등2부

♥ 나성애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려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박나윤 학생)

♥ 나윤아,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무척 보고 싶었어.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도록 하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축하해! (김수진 학생)

♥ 김성관 위임목사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곤 하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성애 선생님)

♥ 중등2부 선생님들께. 모두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선생님들의 가정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박용기 선생님)

청년2부

♥ 천미순 집사님께, 한해 동안 많은 위로와 기도로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의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집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근주 회원)

♥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13조원에게, 어느덧 한 해가 흘러 이제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 하면서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고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기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13조원 여러분! 이 곤고한 나날들을 주님이 십자가 매달려 받으신 고통을 생각하여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지극히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 베푸는 98년도의 마지막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새로운 99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한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최준호 선생님)

♥ 박찬옥 선생님께,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진솔하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에게 배운 것과는 좀 더 인생의 특정한 면에서의 깊이와 새로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삶에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스승님이 되어 주시길 빌고 간구합니다. (정성수 회원)

소망부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새해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윤두한 장로)

♥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쁜 성탄절 맞으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순실 권사)

♥ 몇년 전 성지 순례시에 보았던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 생각납니다. 그 작은 아기가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자가 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려요. 우리도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 닮아 세계를 품에 안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 이형주 권사)

♥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이 복된 소식 널리널리 전하게 하소서! (교사 박숙경 집사)

에바다부

♥ 영광! 영광! 예수님 나셨어요! 즐거운 성탄절,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해요. (서영은 학생)

♥ 예수님, 제가 청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유태욱 학생)

♥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에바다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정영미 선생님)

♥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손짓으로 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안영희 선생님)

사랑부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상원 어린이)

♥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서동석 어린이)

♥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쁨.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임창순 선생님)

♥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따뜻한 성탄절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김중선 선생님)

♥ 예수님, 저희 사랑부 아이들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요. 우리 사랑부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예자 선생님)

교 회 소 식

◆ 알 림

1. 특별제직회 / 27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안건: 98년도 결산 및 99년도 예산안 심의
2. 99년도 Ⅰ, Ⅲ, Ⅴ부 예배 헌금 · 안내 봉사자, 찬양대원 임명 / 오늘 Ⅰ, Ⅲ, Ⅴ부 예배시 있습니다.
   (성례 봉사자 임명 - Ⅲ부 예배시, 핸드벨콰이어 대원 임명 - Ⅴ부 예배시)
3. 99년도 호산나 찬양대원 임명 / 23일(수) Ⅰ부 예배시 있습니다.
4. 성탄절 예배 안내 / 25일(금) 1부 09:00, 2부 11:00 본당에서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저녁 7시 금요집회는 제3회 성탄감사연합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5. 교회학교 '성탄찬양제' 안내 / 24일(목) 18:00 본당에서 있습니다.
6. 원로추대식 · 은퇴식 · 장기근속자 포상식 / 27일(다음 주일)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7. 교사 총회 / 26일(토) 18:00 본당에서 있습니다.
8. 청년1부 명동총동원 전도 / 22일(화) 19:00 명동 대한투자금융 앞에서 실시합니다.

◆ 모 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22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및 성경공부 / 21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16:30, 갈릴리홀
4. 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당회실
5. 찬양위원회 월례회 / 오늘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6. 12교구 협의회 / 22일(화) 18:30, 칼빈홀
7.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4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8. 권사회 연합 기도회 및 권사회 제3지회 월례회 / 23일(수) Ⅰ부예배 후, 갈릴리홀

◆ 남녀전도회

1. 바 울1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2. 바 울16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3. 베드로11 총회 속회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4. 요 한 6 / 오늘 12:00-13:30, 칼빈홀
5. 루디아 5 / 19일(화) 11:00, 새가족부 교사실

◆ 결 혼

1. 한상탁군(한종수 씨, 이춘자 씨의 아들)과 임종명양(임춘식 집사, 김문자 성도의 딸, 제10교구) / 26일(토) 14:00 화사랑웨딩홀 4층 청실(일산 3호선 마도역)
2. 김도진군(김도성 씨의 동생)과 허태선양(허명호 안수집사, 김대희 집사의 딸, 제10교구) / 26일(토) 14:00 신세계웨딩홀 5층 사파이어실

◆ 별 세

1. 이종완 집사(연옥순 집사 시모, 제2교구 논현구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2. 신연임 집사(이승남 성도 모친, 문희 집사 시모, 제1교구 언주1구역) / 14일 별세, 16일 장례
3. 강필수 성도(강대우 성도 부친, 김귀례 집사 시부, 제11교구 동숭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김영파 집사 / 노원구 상계2동 중앙하이츠A. 204-1201, 전화: 935-3208
2. 홍종락 집사, 이석정 권사 / 용인시 수지면 죽전리 중명A. 105-305, 전화: 0331-263-1062
3. 이부성 안수집사 / 직장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22 해라우스 오리엔탈 하이텍(주), 직장전화: 032-830-0030, Fax 032-831-4226 (서울사무소 전화: 790-1123, Fax 790-5155)

♟충현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 모집

(1) 직원 모집부문: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 직업재활 과장(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 5년 이상)
- 특수교사(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2) 우리두리 겨울캠프 자원봉사자 모집
- 대상: 중, 고등부 학생 20명(선착순)
- 일시: 99.1.5(화)~99.1.7(목) 2박 3일 캠프

* 접수 및 문의처: 565-7564

충현 중보의 창

1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오늘 임명되는 각 위원회 일꾼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소서.

3 12월 22일부터 28일에 걸쳐 진행될 수단 단기의료선교를 통해 수단의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아지게 하소서.

4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탄의 날들이 되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소서.

6 12월 24일에는 교회학교에서 준비하여 진행하는 '성탄절 찬양제'가 있습니다. 순전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 탄생 축하의 노래'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12월 25일 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는 메시야 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혼의 찬송이 되도록 모든 대원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7 오늘 있는 남녀전도부 총회와 26일(토)의 교사 총회를 통해 인수인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99년도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하소서.

8 추운날씨로 인해 더욱 고통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소서.

9 원로 추대 및 은퇴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92	오희영	19	청년1부	허준(15)	1901	강호섭	10	청년2부	박상대(2)	1910	임혜영	19	대학부	
1893	김경민	19	청년1부		1902	이경은	10	대학부		1911	최인영	19	대학부	
1894	고유경	19	청년1부		1903	조인형	11	바울	황현철(10)	1912	이용태	19	대학부	신혜선(8)
1895	박종명	19	청년1부		1904	이영미	15	청년2부	박진숙(15)	1913	신현철	12	베드로	
1896	윤원기	19	청년1부	이한주(8)	1905	윤희성	19	중등부		1914	박근애	19	청년1부	
1897	김금희	19	청년2부		1906	이상훈	19	고등부		1915	정의선	19	청년1부	이상기(10)
1898	김영신	6	청년2부	조성직(6)	1907	김미선	19	대학부		1916	김미선	19	청년1부	
1899	문귀례	6	청년2부	조성직(6)	1908	유인정	19	대학부		1917	김계중	19	청년1부	김수연(19)
1900	신현숙	8	루디아		1909	이의기	19	대학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매돌

성탄절을 통해 불러 주신 주님

김 정 순(집사, 13교구)

내가 어렸을때의 일이다.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면 캐러멜 과자를 준다고 동네 아이들이 달려가고 있었다. 나도 동생 손목을 꼬옥 잡고 따라갔었다. 불신가정에서 자란지라 생소한 곳인 교회. 그때는 캐러멜 얻어먹을 생각뿐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 빨리 주지 않을까? 조바심까지 났던 기억이 난다.

그때 이미 사랑의 예수님은 나를 불러 주셨는데 나는 육을 위하여 맛있는 과자를 구하였고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마음을 가졌어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하시고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 계시던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늘 함께하시면서 상처입고 고통당하는 어린 양들을 위하여 아플 때는 어루만져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때에는 대신 져 주신다. 인생의 발자국마다 함께하시고 나그네 인생에 동반자 되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베풀어야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2월 27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찬양곡목〉
· 메시야 중에서

❖ 3부예배
할렐루야찬양대
〈찬양곡목〉
· 하나님의 진리 등대(찬 276장)
· 내 주를 가까이(찬 364장)
· 여호와 하나님(찬 30장)

❖ 4부예배
아멘찬양대
〈찬양곡목〉
· 오 거룩한 밤
· 위로의 소식
·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 메시야 중에서

❖ 5부예배
예본찬양대
〈찬양곡목〉
· 오 거룩하신 주님
· 십자가 그늘 밑에
·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한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김영기 송원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이후찬 김병수
이종태 김윤식 김일승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